

#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 대형화, 운영사 통합 '전면개편'

## 해수부-부산항만공사

화물동량 증가율 감소추세에  
11개 터미널 운영사 6개로 통합  
터미널당 선적수 7.6개로 확대

정부가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개편 방향은 크게 ▲터미널 대형화  
▲운영사 통합 ▲자성대 터미널 2021년  
까지 운영 ▲근로자 고용 보장 등 네 가지다.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는 13일 해운항만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고, 부산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체계의 전면적인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항은 1978년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이 개장한 이래, 세계 6위의 컨테이너 항만이자 세계 2위의 환적항만으로 성장했다. 작년에는 한진해운 파산 등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도 처음으로 연간 컨테이너 물동량 2000만TEU를 돌파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동안 부산항 성장을 견인해온 환적물동량 증가율이 2011년 17.1%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추세에 있으며, 물동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 항만의 견제를 받고 있어 세계 6위 항만의 위상을 이어 나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항만산업과 긴밀히 연결돼 있는 해운산업이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 대형화되고 있다. 2016년 알라이언스가 4개에서 3개로 재편됐으며 상위 선사 중심의

인수합병(M&A)으로 상위 20개사가 11개사로 통합됐다.

경쟁 항만인 상하이, 싱가포르, 두바이 등 세계 주요항만은 비교적 대형화돼 반면, 부산항은 소규모 터미널로 분산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 부산항에는 현재 8개의 터미널 운영사(북항 3개, 신항 5개)가 있으며, 현재 건설 중인 신항 2~4단계, 2~5단계, 2~6단계가 개별 운영되면 총 11개 운영사 체계가 된다. 터미널당 선적 수도 4.1개로 세계 주요항만에 비하면 매우 적은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는 우선 터미널 운영사의 자율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현재의 '다수 소형 터미널' 체계를 '대형 터미널' 체계로 재편할 계획이다.

11개의 터미널 운영사(신항 2~4, 2~5, 2~6단계 개장시)를 6개(또는 7개)로 통합하고, 터미널당 선적 수도 4.1개에서 7.6개(또는 6.5개)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터미널 재편과정에서 국적 물류 기업의 비중을 확대해 국적 물류기업과 외국 물류기업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북항은 3개 터미널을 2개로 개편하고, 자성대 터미널의 재개발 착수시부터는 모든 컨테이너 터미널을 부산항대교 바깥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자성대 터미널은 2021년까지 컨테이너 물류기능을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항은 8개 터미널(2~4, 2~5, 2~6단계 포함)을 4개(또는 5개) 터미널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신항 터미널 재편이 완료되면 서측 터미널은 한국해운연합(KSP), 하역사, 부산항만공사 등으로 구성된 국내기업 운영사가 운영하게 된다. 이를 통해, 그간 신항 이용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선사들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내외 기업의 유통성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해운산업과 항만산업의 선순환 발전과 부산항 환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터미널 체계 혁신이 필수적"이라며 "터미널 재편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산항만공사와 지난 7월 출범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지원을 강화하고, 부산항이 세계적인 물류 허브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우리 과일 많이 이용해주세요"

13일 오전 서울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열린 '농협 추석맞이 우리 과일 소비촉진 행사'에서 농협과 생산자, 소비자 대표가 우리 과일 애용 다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자영업자 34% "최저임금 차등화 해야"

"업종·지역별 생산성 차이 고려를"

정부가 최근 고용 부진의 원인 중 하나로 최저임금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가운데 자영업자 대다수는 최저임금 보완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저임금을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13일 인크루트가 자영업자 2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4%가 '최저임금 보완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 응답자의 업종은 ▲외식·부식·음료(27%) ▲유통·판매(26%) 비율이 높았고, 운영형태로는 ▲자

영업 일반(63%) ▲프랜차이즈(20%) ▲소상공인(13%) 순이었다.

최저임금 보완책으로는 '업종·지역에 따라 다른 생산성을 반영해 최저임금도 차등화하는 것'(3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최저임금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업종이나 지역별 생산성 차이를 고려해 최저임금을 차등 반영해야 한다는 것.

이어 '정부지원 아르바이트생 활용'(17%)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설문조사 대상 대부분이 아르바이트 등 인력을 고용하는 점주인 만큼 해당 인건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파악된다.

/한용수 기자 hys@

## 브라질 시장, 소득별 구매성향 공략해야

인구 2억1000만 '美 대체시장' 유망

무역협회가 인구 2억1000만 명의 브라질 소비시장 공략법으로 중산층은 교육·관광·레저 상품, 저소득층은 생필품·내구 소비재, 고소득층은 고부가가치 프리미엄 제품을 제시했다.

13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소비자 구성을 통해 본 브라질 소비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중남미 최대 소비시장을 보유한 브라질은 지난해부터 불황에서 벗어나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성장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 대외교역이 미·중의 이웃도를 축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브라질은 미국의 대체시장으로도 유망하다는 분석이다.

브라질 소비자는 사회계층을 기준으로

중산층에 해당하는 C계층(소득수준이 전체 평균 대비 100~150%)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비생필품에 대한 재량지출이 많아 각종 내구소비재와 교육, 관광 관련 상품이 주요 수혜분야로 꼽힌다. 특히 저소득층에서 벗어나 중산층에 새로 편입된 신중 중산층은 저소득층과의 차별성을 추구하면서 안락함과 레저, 휴식 관련 소비를 늘리고 있다.

인구 규모 측면에서는 최저소득층인 E계층(소득수준이 전체 평균 대비 50% 미만)이 압도적으로 전체 인구의 39.7%를 차지한다. 이들은 개인별 구매력은 낮지만 전기·수도 등 인프라 개선, 교육기회 증가, 휴대폰 보급 확대, 가치분소득 증가 등에 힘입어 관련 시장이 성장할 전망이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 상반기 카드사 순이익 8101억… 51% 급증

### 금감원, 카드수수료 인하에도 선방

### '경쟁 심화' 마케팅·조달 비용 증가

올해 상반기 카드사들의 순이익이 5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8개 전업카드사의 순이익은 810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9% 증가했다.

카드 이용액 증가로 가맹점수수료 및 할부수수료 수익이 늘었고, 카드론 취급을 늘리면서 카드론 수익도 증가했다.

반면 카드사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마케팅 비용이 급증했고, 조달비용도 다소 늘었다.

대손비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줄었다. 작년 6월 복수 카드론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일시에 적립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변동분만 반영하면서다.

### 추석 예상경비 40만7천원

### 작년보다 7만7천원 줄어

직장인들이 계획하는 올해 추석 예상 경비가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잡코리아가 직장인 1889명을 대상으로 '2018 추석 예상경비'를 주제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추석 예상 경비는 평균 40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 조사 결과(48만4000원)보다 약 7만7000원 감소한 액수다.

특히 기혼 직장인들의 예상 경비 감소가 두드러졌다. 기혼 직장인의 추석 예상 경비는 지난해 64만 1000원보다 12만 8000원이 적은 51만3000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미혼 직장인의 예상경비는 지난해 38만2000원보다 9만4000원이 적은 28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성별에 따른 예상경비는 남성 42만1000원, 여성 38만 5000원 이었다.

올해 추석 예상 경비 하락의 이유는 기업들의 상여금이 줄어든 때문으로 분석됐다.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들에게 올해 추석 상여금이 지급되는지를 물은 결과를 토대로 상여금 지급 그룹과 미지급 그룹의 예상 경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먼저 '상여금이 지급된다'고 밝힌 직장인은 전체 응답자의 25.8%로 나

### <카드사별 순이익 변동 현황>

구 분	신 한	KB국민	삼 성	현 대	우 리	롯 테	비 씨	하나*	계
'17.상반기	1,929	767	822	614	192	60	986**	0	5,370
'18.상반기	3,125	1,225	1,353	758	563	327	750	0	8,101
증 감	1,196	458	531	144	371	267	△236	0	2,731
(증감률)	62	59.7	64.6	23.5	193.2	445	△23.9	-	50.9

\* IFRS 기준 순이익 전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전입하여 감독규정상 순이익이 없음. \*\* 마스터카드 보유지분 처분(+408억원)

카드사별로는 신한, KB국민, 삼성, 현대, 우리, 롯데 등 6개사의 순이익이 증가했다. 비씨는 지난해 마스터카드 지분을 처분한 데 따른 영향으로 순이익이 감소했고, 하나는 IFRS 기준 순이익의 전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전입해 감독규정상 순이익이 없게 됐다. 지난 6월 말 기준 신용카드 발급매수(누적)는 1억226만매로 전년 동월 대비 4.9% 증가했다. 체크카드 발급매수는 1억1148만매로 전년 동월 대비 1.2% 늘었다.

상반기 중 신용·체크카드 이용액은

405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각각 3.9%, 4.7% 늘었다.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카드대출 이용액은 52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했다. 특히 카드론 이용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4%나 늘었다.

지난 6월 말 기준 (총채권)연체율은 1.47%로 전년 동월 말 대비 0.01%포인트 높아졌다. 카드대출 연체율은 2.33%로 전년 동월 2.34% 대비 소폭 하락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추석 전통시장 차례상 비용 23만1천원

aT, 지난주 보다 0.4% 하락

대형유통업체는 32만4천원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차례상 차림비용이 지난주 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3일 2차 추석 차례상 차림비용(전통시장·대형 유통업체) 조사 결과 및 구매적기를 발표했다.

지난 5일에 발표한 1차 조사에 이어 이번 2차 조사는 이달 12일 기준, 전국 19개 지역의 18개 전통시장과 27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추석 성수품 28개 품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지난주 대비 차례상 차림비용은 전통시장은 0.4% 하락한 23만1000원, 대형유통업체는 1.6% 하락한 32만 4000원으로 나타났다.

aT는 지난주 대비 가격이 소폭 하락한 이유로 9월부터 채소류(배추·무·시금치) 작황이 다소 호전돼 출하량이 증가됐고, 특히 배추·무의 경우 정부 비축물량 공급 확대 및 할인판매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차례상 모습.

/연합뉴스

저렴해졌다는 분석이다. 또한 명태도 정부 비축물량이 유입되면서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aT는 지난 10년(2008~2017) 동안 누적해온 추석 성수기 가격을 분석해 부류별 구매적기를 발표했다.

채소류(배추·무 등)는 계약재배 및 수매비축물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가운데,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인 추석 1~2일 전을 피해 추석 3~5일 전에 구입하는 것이 저렴하다.

과일류(사과·배)는 추석 1